

◇안면부 다한증에서 2mm 흉강경을 이용한 제2 흉부 교감신경절 분리술[sympathicotomy]의 결과

김 관민, 김진국, 심영목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

배경 및 목적 : 안면부 다한증에서의 수술적 치료는 성상신경절의 하부 1/2의 절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 방법은 호너증후군 발생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쉽게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. 수장부 다한증으로 제2 흉부 교감신경절 분리술을 받은 환자들에서 술 후 안면부에도 땀이 소실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같은 수술 방법을 안면부 다한증 환자에 적용하였을 때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.

방법 : 1997년 7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2mm 흉강경을 이용하여 흉부교감신경절 분리술을 시행 받은 다한증 환자 106명 중에서 안면부 다한증으로 제2 흉부교감신경절 분리술을 받은 27명을 대상으로 하여 술 후 합병증, 안면부 다한증 소실여부, 보상성 다한증의 유무 및 정도, 수술 만족도 등을 분석하였다.

결과 : 27명 중 남, 여는 각각 18, 9명이었고, 평균연령은 31.1세[18~53]였다. 수술 후 공기누출에 의한 경미한 기흉이 2례에서 발생하였으나 흉관삽입은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, 일시적 신경통이 3례, 일시적 안검하수가 1례에서 발생하였다. 술 후 안면부 다한증의 소실은 100%에서 보였고, 매우 심한 경우 2명을 포함한 24명[88.9%]에서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하였다. 술 후 만족도는 2명을 제외한 25명에서 만족감을 나타내 92.6%이었다.

결론 : 안면부 다한증의 수술적 치료는, 흉부 교감신경절 절제술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상성 다한증의 문제만을 제외한다면, 성상신경절의 절제 혹은 분리 없이 제2 흉부 교감신경절 분리술 만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.

책임저자: 김 관민(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) 발표자: 김 관민(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)